임베디드 시스템 엔지니어를 위한 리눅스 커널 분석

남상규
http://ruby.medison.co.kr/~halite
선임 연구원
(주)메디슨
초음파 연구소

halite (at) medison.com

임베디드 시스템 엔지니어를 위한 리눅스 커널 분석
지은이 남상규

펴냄 $Date: 2002/05/21 01:10:08 $

이 문서는 리눅스 커널을 임베디드 시스템에 포팅하려는 엔지니어들을 위한 기본 지식 습득을 위해 만들어졌다. 리눅스 커널 자체의 원론적인 것 보다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리눅스 커널을 포팅할 때 엔지니어가 리눅스 커널에 쉽게 접근하기 위한 정보나 혹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OS에 대한 이론 보다는 OS가 만들어지는 방법이나 부팅되는 순서 메모리에 적재되고 실행되는 순서 등에 대해 기술하고 더불어 커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본다.

원문은 *http://ruby.medison.co.kr/~halite* (http://ruby.medison.co.kr/~halite) 에있고 가장 먼저 업데이트될 것이다.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선 `<halite (at) medison.com>` 으로 연락 바란다.

차례

표 목록

그림 목록

1장. 리눅스 커널 컴파일하기

리눅스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커널을 컴파일해 돌려 보는 방법을 주변에서 가장 찾기 쉬운 시스템인 PC에서 경험해 보고 기본적인 방법 차례를 습득한다.

1.1. 리눅스 일반

리눅스의 배경이나 리눅스가 왜 좋은지 그리고 리눅스 소스 디렉토리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등을 기술한다.

1.1.1. 왜 리눅스인가?

리눅스가 왜 많이 사용되고 각광 받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수 많이 존재할 것이지만 조금 간추려보면 대충 아래와 같은 몇몇 답으로 축약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짜

아마 이말 이상의 좋은 매력은 없을 것이다. 리눅스가 갖는 가장 좋은 매력 중 하나가 바로 공짜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만약 리눅스가 유료였다면 현재 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리눅스는 GNU의 정신을 따르기 때문에 Copyleft란 말을 쓴다(copyright의 반대). 누구든 어떤 식으로든 사용 가능한 셈이다.

공짜로 성공하거나 유명해 진 것은 많지만 컴퓨터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리눅스 일 것이다. 이런 리눅의 배경은 다음과 같은 몇줄로 압축할 수 있다.

- 리누스 토발즈가 개발, Copyleft
- 1991년 0.01이 첫 발표됨
- 레드햇, 데비안, 슬랙웨어 등의 배포본이 있음.
- 많은 회사 들에 의해 지원됨

특징

- 멀티태스킹
- 멀티유저
- 멀티프로세서
- 많은 아키텍쳐 지원
- 페이징

- 하드 디스크 용 다이나믹 캐시
- 공유 라이브러리
- POSIX 1003.1 지원
- 여러 형태의 실행 파일 지원
- 진짜 386 프로텍티드 모드
- 수치프로세서 에뮬레이션
- 여러 나라 별 키보드, 언어 지원
- 여러 파일 시스템 지원
- TCP/IP, SLIP, PPP
- BSD 소켓
- System V IPC
- 버추얼 콘솔

단점

- 모놀리딕 커널-마이크로 커널에 비해 많은 부분이 커널레벨에서 구현된다.
- 초보에겐 어렵다-시스템 프로그래머를 위한 것이다
- 잘 짜여진 구조가 아니다(성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매력

- 많은 시스템에 의해 성능이 검증되어 있다
- 우리 스스로가 커널을 조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1.1.2. 리눅스 소스 디렉토리 구조

리눅스 커널 소스는 압축된 것이 약 20MB 이상이다. 그러므로 수 많은 디렉토리와 수 많은 파일을 포함하고 있다. 필자가 완료한 몇몇 아주 큰 프로젝트에서도 전체 소스 코드를 압축해 봤자 10MB를 넘기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양으로도 리눅스 커널은 이미 함부로 대하기 힘든 상대임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리눅스 커널 소스의 압축을 풀면 생기는 디렉토리에 대해 알아보자.

한 가지 주의 해야할 점은 리눅스 커널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변하고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이 언제 바뀌어 틀리게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항상 최신 버전을 소스 코드를 참조하기 바란다. 아래의 내용은 2.4.16 ~ 2.4.18의 것을 참조해 설명한 것이다.

모든 코드는 /usr/src/linux에서 시작한다고 가정한다. 이 글에선 이 위치를 $(TOPDIR)이라 표현한다.

Documents

커널에 관계된 문서들이 들어 있다. 커널을 분석하거나 할 때 필요한 정보는 여기를 먼저 보고나서 다른 곳을 찾는 것이 빠른 정보를 얻는 길이다.

kernel

커널의 핵심 코드,스스템콜,스케쥴러,시그널 핸들링

ipc

전통적 프로세스간의 통신,세마포어,공유메모리,메세지큐

lib

커널 라이브러리 함수(printk와 같은 것 들)

mm

버추얼 메모리 관리,페이징, 커널 메모리 관리

scripts

코드 사이의 의존성을 만들어주는 등의 스크립트나 실행 파일이 모여있다.

arch

아키텍쳐에 관계된 코드가 들어있다.

- alpha
- arm
- m68k
- mips
- ppc
- sparc
- i386
  - boot

    부트스프랩코드,메모리/디바이스 설정
  - kernel

    커널 시작점,컨텍스트 스위칭
  - lib

  - math-emu
  - mm

    각 아키텍쳐에 관계된 메모리 코드

- ...

fs

버추얼 파일 시스템 인터페이스,여러 파일시스템 지원

- coda
- ext2
- hpfs
- msdos
- nfs
- ntfs
- ufs
- ...

init

커널이 실행되기 위한 모든 코드,프로세스 0,프로세스 생성...

include

커널에 관계된 헤더 파일,asm-*은 아키텍쳐 관련,linux는 리눅스 커널 관련

- asm-alpha
- ...
- asm-i386
- linux
- net
- scsi
- video
- ...

net

많은 종류의 네트웍 프로토콜 지원,소켓 지원

- 802
- appletalk
- decnet
- ethernet
- ipv6
- unix
- sunrpc
- x25
- ...

driver

하드웨어에 대한 드라이버

- block

  하드디스크 같은 블럭 디바이스

- cdrom
- char

  시리얼 포트,모뎀,tty 같은 문자 디바이스

- net

  네트웍 카드

- pci

  PCI 버스 컨드롤

- pnp
- sbus
- scsi

  SCSI 카드

- sound

  사운드 카드

- viceo
- ...

1.2. LXR

리눅스 소스코드는 압축된 양만 해도 약 20MB 정도되는 방대한 양이다. 게다가 많은 양의 소스 코드에 산재해 있는 많은 함수나 정의를 찾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니다.

예를 들어 root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하는 부분에 대해 분석하고 싶다면 과연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할 것인가? 시작하는 곳을 찾는 것 까진 했다고 해도 그럼 역으로 어디서 마운트를 실행하는가?

소스 코드 분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내가 알고 싶은 함수/변수/정의가 어디에 있는가와 어디에서 불려 지는가 일것이다.

보통은 grep을 사용해 찾아보고 하나씩 열어 보는 방법을 동원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 관련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lxr 프로젝트를 소개 한다.

lxr은 linux cross reference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고 리눅스 소스 코드의 모든 함수/변수/정의 등에 대한 크로스 레퍼런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URL은 *http://lxr.linux.no* (http://lxr.linux.no)다. 여기에서 원하는 버전을 사용해 찾아가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커널의 시작인 start_kernel()을 분석하는 중에 처음 나오는 함수인 lock_kernel()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lock_kernel()을 클릭해본다. 그럼 lock_kernel이 함수로 정의된 소스 코드, 매크로로 정의된 소스 코드 그리고 lock_kernel이 불린 위치가 차례로 열거 된다.

정의를 알고 싶으면 정의에 해당하는 것을 클릭하면 정의되어 있는 소스 코드로 가게되고 불린 위치를 원하면 불린 위치가 적힌 곳을 클리하면 해당 소스 코드로 이동하게 된다.

1.3. 소스 코드 얻기

리눅스 커널 소스 코드는 *http://www.kernel.org* 에서 구할 수 있다. 미러 사이트가 있으니 가장 빠른 곳에서 받으면 된다.

커널 소스는 각 버전 별로 구분된 디렉토리 내에 있고 패치와 각 버전의 완전한 소스코드가 같이 있다. 이 중에 원하는 버전의 완전한 코드를 받는다. 보통 gz과 bz2의 압축으로 되어 있는데 bz2가 약간 더 작기 때문에 필자는 이 타입을 선호한다.

1.4. 소스 코드 풀기

먼저 커널을 컴파일하기 위해 root의 권한을 가져야한다. 시스템에 root로 로그인하거나 su를 사용해 root가 된후 다음 절차를 시작한다.

보통의 커널은 /usr/src 밑에 위치하게 된다. 필자는 여기에 각 버전 번호를 가지고 디렉토리를 만들고 각각에 압축을 풀어 놓고 사용 중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커널 버전을 linux란 이름으로 링크시켜 놓고 사용 중이다. 즉 /usr/src/linux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커널을 가리키게 된다.

```
[root@localhost src]# ls -l
```

```
lrwxrwxrwx    1 root     root           12 12월 24 15:23 linux -> linux-
2.4.16
lrwxrwxrwx    1 root     root           14 12월 24 15:22 linux-2.4 -
> linux-2.4.7-10
drwxr-xr-x   14 root     root         8192  2월  5 11:00 linux-2.4.16
drwxr-xr-x   16 root     root         4096 12월 24 15:22 linux-2.4.7-10
drwxr-xr-x    7 root     root           40 12월 24 15:21 redhat
```

이렇게한 이유는 /usr/include에 linux와 asm 이란 리눅스 커널 소스코드 내의 디렉토리를 링크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커널 버전이 자주 바뀌거나 여러 커널을 같이 사용 중이라면 변하지 않는 패스를 사용하지 않는 한엔 linux와 asm의 링크가 자꾸 변하게되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링크는 언제나 /usr/src/linux/include/linux와 /usr/src/linux/include/asm을 가리키도록 해놓고 /usr/src/linux만을 변경해 주도록 했다.

```
[root@localhost include]# ls -l linux asm
lrwxrwxrwx    1 root     root           26  1월 17 10:46 asm -
> /usr/src/linux/include/asm
lrwxrwxrwx    1 root     root           28  1월 17 10:45 linux -
> /usr/src/linux/include/linux
```

압축을 풀기 전에 주의해야할 것은 압축된 커널의 소스코드는 모두 linux란 이름의 디렉토리로 시작하므로 만약 /usr/src에 linux란 링크나 디렉토리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압축을 풀어버리면 다른 버전의 코드를 엎어쓸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해야한다.

우선 /usr/src/linux의 링크를 없애고 tar를 사용해 압축을 푼 후 /usr/src/linux를 해당 버전으로 바꿔준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cd /usr/src
- rm -f linux
- tar xvjf somewhere/linux-2.4.16.tar.bz2
- mv linux linux-2.4.16
- ln -s linux-2.4.16 linux

1.5. 컴파일 준비

소스 코드의 압축을 푼 후 /usr/src/linux로 이동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것들을 지우고 컴파일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 make mrproper 라고 명령을 실행한다. mrproper는 소스 코드를 처음 깔았을 때와 같은 상태로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만약 커널 설정 등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명령을 실행하면 설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필요한 때만 주의를 기울여 실행해야한다.

cd /usr/src/linux/Documentation 하고 vi Changes 를 한다. Changes엔 현재 커널을 컴파일하고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툴들의 버전 정보가 있다. Current Minimal Requirements 항목을 보고 자신의 시스템을 한번쯤 체크해 보기 바란다. 대부분의 경우는 만족할 것이다. 2.4.16 버전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해야한다.

표 **1-1. v2.4.16** 커널 컴파일을 위한 최소 요구 사항

툴	버전	확인 방법
Gnu C	2.95.3	gcc --version
Gnu make	3.77	make --version
binutils	2.9.1.0.25	ld -v
util-linux	2.10o	fdformat --version
modutils	2.4.2	insmod -V
e2fsprogs	1.19	tune2fs
reiserfsprogs	3.x.0j	reiserfsck 2>&1|grep reiserfsprogs
pcmcia-cs	3.1.21	cardmgr -V
PPP	2.4.0	pppd --version
isdn4k-utils	3.1pre1	isdnctrl 2>&1|grep version

1.6. 커널 설정

커널 설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고전적인 방법, 텍스트 기반의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 X-Window 상에서 GUI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원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사용하면 된다. 필자는 손에 익은 대로 menuconfig를 주로 사용한다.

각각은 다음과 같이 실행된다.

- make config
- make menuconfig
- make xconfig

커널 설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커널 설정에 관한 자세한 것은 *http://www.kldp.org* 를 참조하기 바란다.

커널의 설정이 끝나면 /usr/src/linux/.config가 만들어진다. 이 파일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CONFIG_X86=y
...
CONFIG_MK7=y
...
CONFIG_MODULES=y
...
CONFIG_NET=y
...
# CONFIG_ACPI_DEBUG is not set
```

```
...
CONFIG_PARPORT=m
...
```

모두 CONFIG_로 시작하고 뒤에 각 항목의 이름이 붙는다. 예를 들어 위에서 CONFIG_MK7은 AMD의 Athlon CPU를 의미한다. 그리고 y 혹은 m 아니면 #으로 막혀져 있는 것이 있는데 y는 커널에 직접 포함 되도록 설정한 항목을 의미하고 m은 module로 설정한 것, #으로 막힌 것은 사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1.7. 커널 컴파일

커널을 컴파일 해보자. 컴파일 순서는 다음과 같다.

- make dep
- make modules
- make bzImage
- make modules_install

make dep로 소스 파일과 헤더와의 의존성을 검사해 /usr/src/linux/.depend를 만든다.

make modules는 설정에서 module로 선택한 것들을 *.o의 형태로 만들어 준다.

make bzImage는 커널 자체를 만들어 준다. make zImage를 하는 경우 커널의 크기가 너무 커서 에러가 날 수도 있다. 이 경우엔 더 많은 부분을 모듈로 만들거나 bzImage를 사용해야한다.

make modules_install은 만들어진 module을 /lib/modules/2.4.16에 설치해 준다. 설치와 함께 depmod를 실행해 module 간의 의존성도 만들준다.

1.8. 커널 테스트 및 설치

커널 컴파일이 끝난 후 만들어진 커널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본 후 기본 커널로 설치해 사용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원래의 잘돌아가던 커널을 대체해버리면 혹시라도 에러있는 커널인 경우엔 부팅이 안되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만들어진 커널을 먼저 테스트 후 사용하기 바란다.

테스트 방법엔 2가지 정도를 추천한다. 하나는 플로피를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LILO를 사용하는 것이다.

플로피를 사용하는 방법

> 플로피를 사용하기 위해 make zdisk를 사용해 만들어진 커널을 플로피에 담는다. 복사가 끝나면 플로피를 사용해 부팅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로 생각되고 문제가 있으면 플로피를 제거하고 다시 부팅해 커널 설정 등을 다시 하고 테스트를 하면 된다.

LILO를 사용하는 방법

LILO를 사용해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etc/lilo.conf를 우선 수정한다. 먼저 염두에 둬야할 것은 만들어진 커널 이미지를 어디에 무슨 이름으로 복사할 것인지 결정해 두고 일을 진행해야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 보통은 $(TOPDIR)/arch/i386/boot/bzImage[1]를 /boot/test_img로 복사하고 테스트 한다.

아래는 필자의 lilo.conf다. 기본 부팅용 항목을 그대로 복사하고 image와 label 만을 바꿔 하나더 등록해 부팅한다. 부팅 후엔 LILO에 test라 입력해 새로 만든 테스트 커널을 실험해 보면 된다.

```
prompt
timeout=50
default=linux
boot=/dev/hda
map=/boot/map
install=/boot/boot.b
#message=/boot/message
lba32
vga=0x030a

image=/boot/bzImage-2.4.16
label=linux
initrd=/boot/initrd-2.4.16.img
read-only
root=/dev/hda1
append="mem=nopentium hdd=ide-scsi"

image=/boot/test_img
label=test
initrd=/boot/initrd-2.4.16.img
read-only
root=/dev/hda1
append="mem=nopentium hdd=ide-scsi"
```

커널의 설치는 간단하다. 커널 이미지와 맵 파일을 복사하고 lilo.conf를 수정해주면 된다. 복사할 파일은 $(TOPDIR)/arch/i386/boot/bzImage와 $(TOPDIR)/System.map 두 개다.

필자는 bzImage를 /boot/bzImage-2.4.16과 같이 버전 이름을 사용해 복사하고 System.map을 /boot/Sysstem.map-2.4.16과 같이 복사한다. 그리고 /boot/System.map-2.4.16을 /boot/System.map 으로 심볼릭 링크를 만들어 준다. 커널은 /boot/System.map을 찾아 사용하기 때문이다.

주석

1. $(TOPDIR)은 커널 소스 디렉토리를 가리킨다. 즉 /usr/src/linux.